

# 제128회

10월 8일

- ... 본회가 주최한 제 ... ○
- ... 128회 발명교실이 지 ... ○
- ... 난 10월 8일 발명장 ... ○
- ... 려관 연구실에서 개 ... ○
- ... 최되었다. 매월 둘째 ... ○
- ... 토요일 오후 1시 30 ... ○
- ... 분에 개최되는 발명 ... ○
- ... 교실은 이 달에도 ... ○
- ... 1백여명이 참석하여 ... ○
- ... 성황을 이루었다. ... ○
- ... 이날 발명교실에 ... ○



## 배드민턴 콕의 발광장치 발명가

### 주영상사 대표 김부일

“쉽고도 좋은 것이 귀한 현실이지만 이를 찾고자하는 발명가들의 꾸준한 노력은 언제 어디서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이 윤택해지고 여유가 있어지면서 사람들은 건강을 찾고자 했다. 스포츠는 이래서 몇몇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취미로 발전했다.

여기에 일조를 한 발명가가 있다. 주영상사 김부일 사장.

‘와와... 금메달입니다. 금메달!’

모든 스포츠가 그렇듯이 국민들이 함께 즐기고 분위기가 무르익을수록 금메달 수는 늘어만 간다.

마찬가지로 김부일 사장이 발명한 배드민턴 콕의 발광장치도 배드민턴의 생활 스포츠화를 이루기 위해 만들어졌다. 동네 길목이나 주택가, 혹은 아파트단지 그리고 아침운동에 빠지지 않는 것이 이 배드민턴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즐길 수 있어서 참 편리하다.

어느날 여름 김사장은 해질 무렵 공원에 산책을 나갔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짝을 맞춰 배드민턴을 치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하나같이 헛손질이었다. 이유인즉 해가지고나니 어두워서 공이 보이지 않아 모두 허둥대기만 한 것이다.

김사장의 번뜩이는 재치는 여기서 발휘되었다. 무더운 여름, 밤에 배드민턴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참 동안 곰곰히 생각한 김사장은 ‘그래, 배드민턴 공에 불을 밝히면 되는거야!’

곧바로 연구실로 들어간 김사장은 여러가지로 공을 만들어 보았다. 배드민턴 콕에 야광액을 바른 후에 코팅처리를 하여 사용해 보았다. 보기 좋게 실패했다. 첫작품은 불

# 발명교실

## 성공사례 등 발표

- ... 서는 주영상사 김부 ... ○
- ... 일 사장의 발명성공 ... ○
- ... 사례 발표와 김영화 ... ○
- ... 변리사의 산업재산권 ... ○
- ... 제도 해설에 이어 새 ... ○
- ... 생각회 강신묵 회장 ... ○
- ... 의 발명의 발상기법 ... ○
- ... 에 대한 강의가 있었 ... ○
- ... 다. 발명가의 성공사 ... ○
- ... 례를 간추려 소개한 ... ○
- ... 다. <이두성 記> ... ○



빛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두번째는 전기장치를 이용하기도 하고 소형의 수은배터리 발광다이오드 및 마이크로 스위치 등으로 시제품을 만들어 보았으나 이번에는 무게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원가부담이 커서 실용성이 없었다.

김사장은 머리도 식힐겸 실내 낚시터에 갔다. 김사장은 그곳에서 실마리를 찾았다. 해답은 바로 카메라이트였다. 가볍고 어두운 곳에서도 빛을 낼 수 있는 소재로는 밤낚시에 사용되는 카메라이트가 적격이었다. 우선은 배드민턴 코트의 중앙에 구멍을

뚫어 카메라이트가 꼭 끼도록 밀착을 시켰다. 코트의 재질도 PVC 나팔관을 사용하니 재질도 비슷하여 마찰력이 강해 힘센 타격에도 카메라이트는 빠지지 않았다. 한마디로 고장이 없었다.

김사장은 시제품을 만들었다. 제품명을 반딧불이라 하고 판매에 착수하였다. 주 구매자를 청소년층으로 삼아 문구점에서부터 시작하여 스포츠용품점까지 판매를 의뢰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쉽고도 좋은 것이 귀한 현실이지만 이를 찾는 발명가들의 꾸준한 노력은 언제 어디서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

을 것입니다.’

또한 ‘집중력있는 사고와 정확한 관찰력은 불편함과 필요성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데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밤에도 낮과 같이 배드민턴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이런 김사장의 노력에 의해서 가능해졌다.

이번 히로시마 아시아대회에서 종합2위의 목표로 땀을 흘리는 선수들에게 국민들의 생활스포츠화된 열정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금메달을 딸 때마다 국민들의 환호성이 전국도에 메아리쳐 가슴 흐뭇하게 다가온다. ♣